제 1012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11년 6 월 5 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마28:18-20)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발 행 · 발 행 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승리하는 기도의 습관
(느 2:1-10)

박노철 목사

이기는 사람은 분명히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승리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분명히 승리를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태어난 그가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느헤미야의 기도 습관

느헤미야서에는 기도했다. 묵도했다. 금식했다, 통곡했다,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모습이 수 십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호흡이었으며 습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기회가 왔다고 해서 자기의 소원을 마구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도한 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목적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2. 기도의 동역자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 전체가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기도의 동지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십니다.

토레이 목사님는 "일에 분주한 것 때문에 기도시간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가장 아껴주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 페르시아 수산 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너져 황폐케 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시 56:9).

다윗은 기도할 때 원수가 물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승리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지속적인 기도, 무시의 기도, 합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교회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Habit of Victorious Prayer
(Neh 2:1-10)

Clearly, those who win have a victorious habit, and victorious Christians have a habit of gaining victory.

Nehemiah lived a surprisingly victorious life. It must have been a great thing for someone who was born a prisoner of war to become a cupbearer to the Persian king, Artaxerxes.

1. Nehemiah's habit of prayer

The moments of Nehemiah's prayer life was expressed as 'prayed,' 'prayed silently,' 'fasted,' 'lamented,' and 'yelled for help.' These appear dozens of times in the Book of Nehemiah. Prayer was to Nehemiah his breath and habit. Upon hearing that the wall of Jerusalem had been destroyed, its gates burned, and God's people under hardship and insults, the action that Nehemiah took was prayer. He had always prayed, and he prayed even in that moment.

He prayed without ceasing. Whenever he decided to do something, he never forgot to pray even for a second. When the king Artaxerxes asked him, "What is it you want?" the text said, "Then Nehemiah prayed to the God of heaven." He didn't directly ask for what he wanted in this ideal opportunity. However, after he prayed for a brief moment, he accomplished his purpose with the grace that God had given him.

2. Co-workers in prayer

Nehemiah didn't pray by himself. The whole Bible shows us the importance of working together. The reason why Daniel was not afraid of the lion's den is that he had fellow worker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Just as it says, "Again, I tell you that if two of you on earth agree about anything you ask for, it will be done for you by my Father in heaven" (Matt. 18:19), when we agree about anything we ask for, God is with us in His wonderful covenant.

Pastor Torey said, "No matter how busy you are, Don't lose your prayer time!" "The more you work, the more you must pray." "Prayer is not wasting time but economizing it."

Nehemiah was a cupbearer to the king, Artaxerxes, within the city of Susa, Persia, but he also lived a winning life that was used to rebuild God's city because of his habitual prayer.

My beloved Christians!

"Then my enemies will turn back when I call for help. By this I know that God is for me" (Psalm 56:9).

When David prayed, he declared that his enemies would turn back.

Like Nehemiah, having the habit of prayer, praying without ceasing, and praying together, I earnestly pray that all of us will enjoy God's abundant grace in our homes and work, and in the midst of our church and count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홍해작전, 내일 개전

6월6일(월)-25일(토) 새벽5시, 본당에서 / 금요기도회는 개인기도로

6월6일(월)부터 25일(토)까지 20일간 박노철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는 2011 홍해작전 주제는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 6:4-9, 사 40:27-31)이며 부제는 "기도와 부흥"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기도로 극복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 조국의 평화, 한국 교회와 서울교회의 비전, 개인과 가정의 기도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벽을 깨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

홍해작전 본부는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홍해작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성도들이 함께 나눌수 있도록 홍해작전 체험수기를 6일~30일 까지 공모한다. 홍해작전 체험수기는 서울교회 홈페이지의 첫 화면 중간의 [홍해작전 체험수기 공모 배너]를 클릭한 후 작성할 수 있다. 홍해작전 기간동안 빠짐없이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서 주무실 성도들은 남성은 702호 , 여성은 706호을 준비하였으며 아침에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식사도 준비중이다. 홍해작전 기간 중 금요기도회는 쉬며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바란다.

말씀과 기도의 홍해작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간중 이루어지는 기도에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란다.

방글라데시 교회 지도자, 6월 7일 도착

제20차 KIMCHI 신학세미나 참석위해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준비해 온 제20차 KIMCHI 신학 세미나가 드디어 모레(화) 개강한다. 6월7일 오후7시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10일간의 일정이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 초청 받아 오는 20명의 방글라데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새벽기도회와 10개의 강의와 토의, 아가페타운 및 기독교 관련 단체와 교회학교 방문, 그리고 우리 교회 다락방 모임과 각종기도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부흥과 활동력을 배우고 체험케 된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위한 큰 일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 바란다. 멀리 방글라데시에서 오는 교회지도자들이 무사히 도착하여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워 익혀 자국으로 돌아 간 후 방글라데시에 복음전파와 교회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린다. 이 기간동안 수요 중식, 석식은 제공하지 않으며 교회에서의 모임도 자제를 부탁드린다.

호산나대학생들의 아름다운 봉사

지난 2011년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사)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가평군지부는 가평 올레 코스인 자라섬에서 '푸른 산 맑은 물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장애인 가평올레길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호산나대학 전공과 재학생 12명은 자원봉사자로 참여, 지체장애 어르신들의 휠체어 이동 및 말벗 봉사를 하였다. 학생들은 대학 전공수업(노인케어 수업)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실습의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관계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장애를 가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봉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번 걷기 대회가 호산나대학생들로 인해서 더욱 빛난 것 같다'며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어예배부 지도 목사 부임

Steven Martinolich(71년생) : 영어예배부 지도 목사

- Torch Trinity School of Theology(M. Div)
- Nippissing University, Canada(Bachelor Degree of Education)
- Carleton University, Cananda(Honors Bachelor Degree of Law 4years)
- 성안교회, 갈보리 교회,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
- 이성애 사모 사이에 세자녀를 두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QR코드 서비스 실시

QR코드는 정사각형 형태의 특수 문자로 구성된 코드로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QR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를 읽어들이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추가 정보를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1,000만 시대에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으로서 QR코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순례자와 주보에 QR코드를 삽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단(단장 : 오정수 장로)에서 제작중인 서울교회 모바일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모바일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동영상 설교 및 다양한 교회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4면 하단 참조)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5]

(문 4) 창조론을 제시한 창세기 1장은 유신론적 진화론과는 어떻게 구별하여야 합니까?

(답) : 철학으로서의 진화론과 더 높은 종(種)으로서의 진화한다는 생물학적 진화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속 진화되고 있다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으로서의 진화론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우주가 진화되어 왔다는 설입니다. 모든 실체는 불변하는 물리적 법칙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생의 존재 이유도 목적도 없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목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법이고 가장 큰 수를 위해 가장 큰 선을 산출한다는 윤리적 근거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론은 1859년 종의 기원을 쓴 Charles Darwin에 의해 더 발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진화론의 무신론 사상은 창조론의 동반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최초의 그 무엇이 있게 하신 절대자를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라는 이 같은 생각은 유신론적 사상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서술적 기계주의로서 진화론은 다윈 이후 적자 생존원칙에 의해 Mendel의 식물 실험으로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신론적 진화론에 반해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으면서 그의 계획이 발전 도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진화론과는 달리 유신론적 진화론은 무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물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화적 과정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힘이라기보다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신론적 진화론은 창세기 1장의 창조론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모든 체계를 프로그램화하여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자신은 옆으로 비켜서서 은퇴한 사람처럼 돌아가는 모습만 관찰이나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이신론(deist) 사상과 다를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나 응답할 수도 없고 피조물에 대한 관심도 더 이상 가지실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그로부터 구원도 없을 것이며 결정된 체계 속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혹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나 인격적 관계가 있다 해도 그 안에 기계적으로 방향이 정해진 진화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역사적으로 피조된 개인으로 보질 않고 이성의 사람(Homo sapiens) 즉 유인(Subhuman)에서 점차 발전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식한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숭이-인간이 아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책에 의하면 주전 30,000년경에 크로마뇽(CroMagnon)이 영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성경의 창조론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계속)

이종윤 원로목사 CTS대담

한국교회,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는 CTS기독교TV는 교계의 원로목사들과 한국교회에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모시고 두 번에 걸쳐 'CTS 스페셜-한국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를 방영하였다.

지난 5월 26일 두 번째 방송에 출연한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 목사는 함께 출연한 이억주 목사(예원교회), 김경원 목사(서현교회), 이성희 목사(연동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나누었다.

이 날 대담에서 이종윤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의 강점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며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정신인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동교회의 이성희 목사도 한국교회의 교회쇠퇴신드롬을 안타까워 하며 세상을 향한 섬김과 포스트모던시대인 지금 영적전쟁에 대한 철저한 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모든 한국교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는 참석자들은 여전히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믿음의 저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조언을 하였다.

(편집부)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린 선물

남재은 집사 (12교구)

많은 이들이 아이 낳기를 기피하고 있는 지금 세 명의 아이를 낳았다며 주신 장한 어머니 상이지만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엄마입니다.

2004년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전절제하고 세 번의 방사능 동위원소치료로 완치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상선은 내분비계이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임신을 하기도 어렵고 임신이 되더라도 임신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제게 맡겨주신다면 세상의 헛된 것을 좇지 않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로 양육하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만 한 명의 건강한 아이만 갖게 된다면 더 욕심내지 않겠다고 했던 제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세 명의 건강한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선물 하린이, 하나님의 사람 하람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게 될 막내 하율이까지 저는 하나님께 너무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서울교회 유아부에서 성경암송을 하며 말을 배우고, 찬양을 하며 노래를 시작한 일곱 살의 하린이는 무슨 잘못을 하여 혼을 낸 후 안아주면 엄마의 귀에 대고 "하나님~ 하린이가 엄마 말씀을 안들어서 혼이 났어요. 하나님~ 엄마 마음 안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특한 딸입니다.

두 돌이 갓 지난 하람이도 유아부에서 배운 찬양으로 가족모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며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도하기도합니다. 6개월된 하율이도 이제 곧 누나, 형을 따라 예쁘게 찬양하고 성경암송도 하겠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토록 약한 나에게 세 명이나 되는 아이를 허락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천사같은 아이들의 엄마라 불리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이지만, 이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더욱 큰 감사입니다.

너무 나약하고 힘없는 저이지만 제 안의 성령님은 강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힘든 육아를 이겨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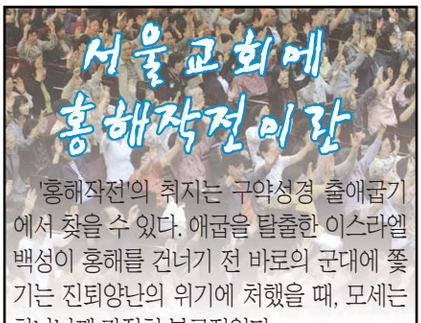
지난 세월이 아쉬워 뒤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서울교회 경비 직책으로 온 2008년 이후 처음 1년 간은 제게 믿음이란 것은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고, 매일을 불평과 불만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 이종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성경 1독을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성경을 한 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한장도 읽어 보지 못한 저였지만 성경1독 하신 분들의 사진이 붙은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도전할 마음이 생겨,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그 해 2독을 하고, 지금까지 20독 이상을 하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무작정 읽기 시작한 성경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침침해 읽기 힘든 성경이었지만 지금은 눈이 많이 좋아져 계속해서 성경이 저의 손을 떠나지 않게 되었고, 읽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교회에서 궂은 일이나 힘든 일을 할때에도 항상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많은 죄를 지은 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천국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실한 종으로 서울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홍해작전'의 취지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 바로의 군대에 쫓기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주신 것이다. 그 모세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현재의 모든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 바로 홍해작전이다.

홍해작전은 해마다 현충일인 6월6일에 시작하여 6월25일 6.25사변 기념일까지 20일 동안 전개된다. 전 교인은 이 기간에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고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호국의 달 6월에 나라와 민족사회의 현실과 장래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며, 이와 함께 성도 개개인의 영적 회개의 기회를 갖고, 교회의 오늘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온 새벽기도회를 배우고 실천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힘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말씀과 기도를 쉼없이 힘써야 하겠지만 이 기간 동안은 전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합하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정한 공동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게다가 킴치신학세미나(KIMCHI신학세미나: 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에 참석한 많은 해외 교계 지도자들도 이 홍해작전에 참석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자국에서도 이를 계승해 나가려는 노력으로 이어진 것은 또 하나의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김민철 집사(편집부)

도고팀소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일 오후 4시, 301호 성찬준비실, 9명의 기도 전사들이 모여 있다. 손신일, 민매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체코 선교도고팀>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파송지로 떠난 두 분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자녀 요한, 나단)을 위해, 그리고 이들이 속한 코블리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도고팀장 김영옥 권사)

체코 프라하는 유서깊은 예술의 도시로, 전세계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프라하 코블리쉬 교회는 아시안 유학생들을 위한 교회로, 손신일, 민매라 선교사는 약 200여명으로 추정되는 일본인 유학생들을 위한 일본어 예배를 섬기고 있다.

재일교포 3세로 일본 국적의 손신일 선교사는 체코로 파송받기 전, 일본에서 10여 년간 선교사역의 경험을 쌓았다. 일본인들은 다신교 문화에 익숙하여 하나님 영접에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이지만, 반면 우상숭배의 뿌리 깊은 관습으로 인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체코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진지하고 깊이있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고. 자신들을 지도해줄 영적 지도자에 갈급해 있다. 손신일 선교사는 이들이 일본으로 돌아가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씨앗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영성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민매라 선교사는 음악사역과 치매병동을 방문하여 찬양을 나누는 병원사역을 이어가며 한편 유학생들을 가정으로 초대해 성경공부를 하고 김치를 나누어주는 김치사역도 병행하고 있다. 오는 5월 27일에는 체코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을 공동체 화합을 위한 음악회도 열 예정이다.

체코 선교도고팀은 코블리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되어 뜨거운 교회로 부흥을 거듭하길 기도하며, 각종 비자 문제와 경제적 곤고 등,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를 돕는 손길들과 동역자들을 속히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체코 도고팀은 서울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께 힘과 위로가 되는 기도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한다. "주님이 보내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성령충만하여 그 인도하심에 따라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을 이겨나가고 주신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하도록 눈동자 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길 쉬지않고 간구합니다!"

나소정 집사 (편집부)

KIMCHI신학세미나 일정표

	6.07(화)	6.08(수)	6.09(목)	6.10(금)	6.11(토)	6.12(주일)	6.13(월)	6.14(화)	6.15(수)	6.16(목)
5:00 AM	등록	새벽기도회(홍해작전)								출발
6:00 AM ~6:30 AM		개인시간								
10:00 AM		아침식사								
10:50 AM		강의1 민경배 박사	강의2 박정신 박사	강의4 유영권 박사	강의5 조종남 박사	교회학교 참관	강의6 박노철 목사	강의8 이동주 박사	강의9 오우성 박사	
11:10 AM		Intermission								
12:00 PM		토의	토의	토의	토의	예배	토의	토의	토의	
1:00 PM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2:00 PM		시내관광 남산타워 광화문 광장 경복궁	강의3 김영한 박사	방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CBSTV	산상기도 (아가페타운)	자유시간	방문 한국성서공회	방문 서울 월드컵 경기장 & 연세대학교	강의10 김재진 박사	
3:00 PM			토의			교회학교 참관	강의7 이승구 박사		토의	
3:30 PM 4:00 PM 4:30 PM			군선교 이갑진 장로						자유시간	
5:30 PM						저녁예배	토의		나눔의 집	
6:00 PM	환영만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7:00 PM	개회예배 (박노철 목사)	방글라데시를 위한 기도모임	그룹미팅	다락방 모임 참관	자유시간	묵상	기독교 전략회의	만찬	종강예배	
8:30 PM										

◀ 지난 2일(목) 교육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 주관으로 특강이 있었다. "S.O.S 성경적 훈육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임우민 교수(백석대 교수)가 특강하였다. 참석한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

동정

■ 피선 : 유관모 집사(2교구) 6월9일(목) 여호수아회(강남OCU) 회장

■ **주간 식당 봉사** : 제2권사회(5.29) 빌립선교회(6.5)

■ **금주의 식사** : 이승래 집사 김정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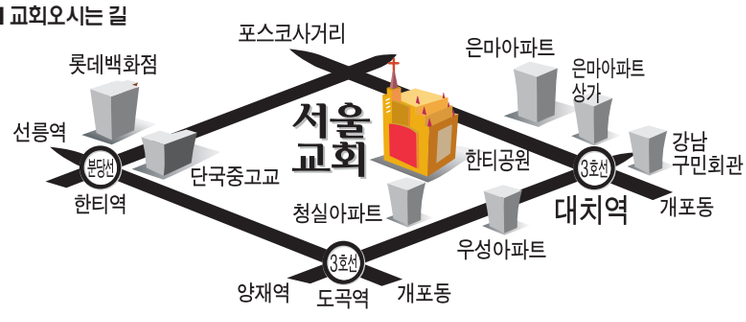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앞에 있는 홍해들이 열리는 응답이 있도록
2. 2011 김치 신학 세미나에 초청받은 방글라데시 교회 리더들이 강건함으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도록
3. 방글라데시에 파송되신 바로이 선교사님과 조남혜 선교사님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Ⅰ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 20분
	Ⅲ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